

# 알록달록 공방, 어린이 벼룩시장...동명동 예술골목에 다 있다

## 'Art & Eco Tour Day'

40여 공예 공방·로컬 상점 등 참여  
25일 마켓·공연·체험·투어 등 행사  
전국 여행자 15명 초청 팸투어도

광주 동명동은 젊은이들과 외지인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다. 맛집을 비롯해 이색적인 카페가 많아 새로운 문화와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순히 카페거리만으로는 경쟁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대료가 비싼데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카페나 상점들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공방들과 협동조합 등이 손을 잡고 로컬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콘텐츠 자원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일명 'ART & ECO TOUR DAY'는 마켓, 체험, 공연, 투어가 아우러지는 장이다.

25일(오전 11시~오후 7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푸른나무공방을 비롯해 아트벨라, 아우르, 빛남영화공동체, 동명투어우, 하이퍼협동조합(여행자의집)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또한 동구청을 비롯해 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 동구관광문화재단, 동구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이 후원한다.

행사를 공동 기획한 이진희 조선대 산학협력교수는 "이번 행사는 동명동 카페거리가 '카페골목'이라는 브랜드만으로는 지속 가능할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동명동 골목에 있는 공방들, 그리고 이들의 단체 커뮤니티에 대한 바람 등을 하나로 묶어 예술, 문화자원의 새로운 장을 펼쳐보려고 했다"고 취지를 말했다.

푸른나무공방 이지현 대표는 "공식적인 유행 행사가 있기 전에도 수년간 공방 차원에서 염색이나 전시 등을 개최했다"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한편 예술골목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예술체험과 공방체험, 음악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문화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오는 25일 'ART & ECO TOUR DAY'가 열린다. 사진은 2022년 열렸던 '어쩌다 작가' 장면. <푸른나무공방 제공>

이번 행사는 동명동에 소재한 40여개 공예 공방들과 로컬상점 등이 참여하며, 무엇보다 지자체 예산을 받지 않고 민간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가족공예를 비롯해 염색공예, 금속공예, 패브릭공예, 캔들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네온공예, 부채공예, 컬러링북, 팝업북 등 공예품들을 현장에서 할인 가격(10~30%)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주, 화장품, 드립커피, 오란다, 쿠키, 빵, 수제정, 펫푸드, 코끼리풍종이노트, 친환경제품 등 다채로운 상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체험 교육도 이루어진다. 원데이클래스 일환으로 천연염색, 가족공예, 캔들공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동구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도 열린다. 이번 벼룩시장은 어린이 장터 및 생활터 위주로 진행된다. 폐품 활용한 악기 만들기, 화전 만들기, 조각보예사 만들기, 태양광 유리병 꾸미기, 태양광 비행기 로봇 만들기 등도 예정돼 있다.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DJ 주광이아트벨라(오후 4시)에서 'Art-Music Show'를 진행하며, 오후 6시부터는 예술골목에서

타라재이 송재영 진행으로 특별공연이 이어진다.

특별공연 1부는 '어쩌다 기타반 연주'가 2부는 초청 연주로 구성돼 있다. 영화 '건축학개론' OST 클래식을 기타 연주자인 김진택 한예종 교수가 들려주고 바리톤 손승범, 오카리나 박이레, 우쿨렐레 정은아와 김민정의 무대도 마련돼 있다. 안관주의 하모니카 연주, 전남대 음악동아리 '선율'의 연주도 시민들을 찾아간다.

다양한 예술과 문화, 친환경 프로그램 모토에 따라 다채로운 기획 전시와 이벤트도 선보인다. 희귀 카메라 전시, 페플라스틱과 농약분무기통으로 만든 업사이클 악기 전시, 스크린샷러 전시 등도 만날 수 있다. 광주 동구가 지닌 역사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5·18 기억에 관한 도서전도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와 연계해 하이퍼협동조합(여행자의 집) 주관으로 전국 여행자를 15명을 초청해 팸투어도 진행될 계획이다. 동명동 푸른길, 카메라박물관, 동구인문학당, 원도심골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동구의 관광콘텐츠자원을 소개해 동구와 친해지는 관계맺기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푸른나무공방 이지현 대표는 "체험, 공연,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와 결합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공방이나 로컬상점이 만든 우수 제품들의 사업화가 촉진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동명동 공방들과 로컬상점들의 공동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마켓·공연·체험·투어



'소풍'

## 잇고 있었던 유년의 맑고 순박한 꿈들

김영화 '아름다운 동행' 전...23일 DJ센터 화해갤러리

'소풍'을 보고 싶다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뱃나무 같기도 한 나무에 점점이 달린 분홍꽃과 흰꽃들은 화사하면서도 아름답다. 화르르 바람이 불면 눈썹이 흘날리듯 천지에 꽃비를 쏟아낼 것만 같다. 나무 아래로 흐르는 강은 눈부시게 푸르려 손에 닿으면 온몸이 푸르게 물들 것 같았다.

유년의 어느 한 때로 회귀한 듯한 풍경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듯 호응한다. 꽃나무 그늘 아래 웅기종기 모여 있는 가족들은 마치 천상의 어느 공간으로 초대됐는지 모른다. 강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다리는 꿈과 현실을 가로지르는 것 같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화 작가가 '아름다운 동행'전을 연다. 오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화해갤러리.

작품들은 한편의 동화를 닮았다. 책장을 넘기듯 한 작품, 한 작품 마주하다보면 잊었던 맑고 있었던 유년의 맑고 순박한 꿈들과 만나게 된다. 한편으로 그의 그림은 우리가 너무도 멀리 '아름다운 순간'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작품 '추억'은 70~80년대 어느 골목에서

봤을지 않은 장면이다. 중년의 아저씨가 편지를 굶고 있고 어린 소녀가 하염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표정마저 건넌 뒤로 보이는 이발소와 과일 가게 간판은 정겹기 그지없다.

'해바라기꿈'은 환상과 동화, 현실이 교직된 작품이다. 해바라기 눈에 비친 일상의 모습, 도로의 풍경, 사람들의 움직임이 마치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풍경처럼 해맑다. 해바라기가 환하게 건네는 인사에 굳어 있던 마음은 부드럽워지고 풍요로워진다.

김 작가는 "이번 '아름다운 동행'전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절의 풍경과 오늘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서정적인 감성과 부드러운 붓질로 구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며 "작품을 통해 저마다 아름다운 동행을 상기하고 잠시나마 웃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 기획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 서양화분과 이사를 맡고 있으며 남부대 외래교수, 목우회 이사 및 광주전남지회장을 역임했다. KPPAA 골든 아티스트상, 평화예술제 대상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방들이 제작한 다양한 제품들

## 브람스 헝가리무곡 전곡, 연탄곡으로 만나다

아미치 디 피아노 '브람스 피아노 앙상블 전곡연주회', 23일 광주예술의전당

"피아노의 친구들'이라는 뜻의 '아미치 디 피아노'는 광주·전남 피아니스트들이 주축이 되는 피아노 단체입니다. 전문성 있고 학구적인 연주회를 위해 한 주제나 작곡가에 집중해 레퍼토리를 꾸리곤 하죠."

아미치 디 피아노 신수경(전남대 음악학과 교수) 대표의 말이다. 이들은 '브람스 피아노 앙상블 전곡연주회'라는 주제로 올해 총 세 번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그 첫선으로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헝가리 무곡' 전곡을 연주할 예정이며 이후 왈츠, 소나타 및 변주곡으로 각각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브람스가 1~4집으로 나눠 출판했던 헝가리무곡 21곡 전곡을 연탄곡으로 연주한다. 최초의 헝가리 무곡은 한 대의 피아노를 두 명이 연주하는 포렌츠(연탄곡)였지만, 이후 곡이 인기를 얻게 되자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 관현악 편곡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1집(1~5번)은 김동준과 이지은의 선율에 실리며 2집(6~10번)은 임민경 및 조사무엘이 연주한다. 1869년 출판된 1~2집은 브람스가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와 헝가리 연주여행을 다녀온 뒤, 헝가리 집시민요 선율을 인용해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1880년 출판한 3~4집이 집시 선율이 아닌 브람스 자신의 순수 창작 선율인 점과 대조적이다.

이어 김하은과 김소영이 들려주는 3집(11~16번), 신수경과 서윤진의 4집(17~21번)도 레퍼토리에 있다.

신수경 대표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5번(F#단조) 등 몇 곡을 발췌해 연주하곤 하는데, 원곡인 피아노 연탄곡으로 21곡 전곡이 연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21곡 전곡을 피아노 연탄곡으로 연주하는 것은 광주에서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아미치 디 피아노 창단 및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연주회 모습. <아미치 디 피아노 제공>

## 오방 기념사업회·호남영성연구원 공동세미나...28일 YMCA

오방 최홍중(1880~1966) 목사의 '낮은 자와 함께하는 정신'을 성서의 환대(款待) 개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오방 최홍중 기념관(이사장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과 호남영성연구원(이사장 서순복, 조선대 법학과 교수)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YMCA 백제관에서 '오방 최홍중의 환대와 광주 정신'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성호 호남신학대 교수가 '성서로

본 오방 최홍중의 삶과 환대 영성'을, 김종현 광주 로고스문화교회 목사가 '오방 최홍중의 환대와 광주 정신'에 대해 각각 발제 발표한다. 또한 호남신학대 박용범 교수와 흥인화 전 518기록관장, 전남대 조정관 교수, 강행욱 변호사(전 YMCA 이사장)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순복 이사장은 "그동안 오방 최홍중에 관한 연구는 신앙과 사회적 참여에 집중됐고, 오방의 정신과 광주 정신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대

단히 부족했다"며 "환대가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광주 정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 꾸준히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인구 증가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면서 "오방 최홍중 선생은 국권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던 일제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환대를 실천함으로써, 광주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광주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송기동 기자 song@

## 광주전통미술대상에 한국화가 홍정호 선정

광주전통미술대상 제2회 수상자로 한국화가 현암 홍정호(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광주전통미술연합회(회장 정광주)는 20일 지역 전통미술 발전 및 후진양성에 공로가 지대한 전통미술 분야 중진이나 원로에게 수여하는 광주전통미술대상 올해 수상자로 홍정호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금 300만원.

2022년 9월 한국화, 서예, 문인화, 민화 분야의 작가 60명이 주축이 돼 결성된 광주전통미술연합회는 전통미술 분야에 공로가 큰 중견 및 원로작가 중 한 작가를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정 전통미술연합회장은 "남도 수목회 활동과 전업작가회, 30여 년간 후진양성의 공로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고 이번 선정 배경을 전했다.

홍 작가는 수상 소감에 대해 "뜻하지 않게 상을 받게 돼 기쁘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양화를 처음 접하고 20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88년부터 동양화 학원을 하면서 가르치고 함께 공부를 하



보니 어느덧 40여년이 다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우리 나이로 고희인데, 그런 공적으로 해서 이번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예술의 길은 끝

이 없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성심하게 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미술협회 운영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작가는 개인전 19회 등 다수 전시를 열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분야 외에도 국제 수목비엔날레, 전국 규모의 공모전과 국제전 등에서 운영위원, 심사위원, 조직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0일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광주전통미술연합회 제2회 전시회 오픈식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